

The Effects of Career Development on Work Values among Youth: Focusing on the Time-Lagged Mediating Role of Stress

Jung-Won Hwang*, Jin-Sook Kim**

*Ph. D.,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ime-Lagged mediating role of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and work values using data from the Youth Panel 2021 (Waves 1-3, N=5,51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first, Time 1 career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ime 2 stress, which in turn negatively affected Time 3 work values. Second, Time 1 career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ime 3 work values. Third, Time 2 stress partially and tempor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1 career development and Time 3 work valu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reer development acts as a psychological buffer in an uncertain labor market, highlighting the need for integrated support linking career assistance and stress management.

▶ **Key words:** youth, career development, stress, work values, Time-Lagged study, mediating effect

[요 약]

본 연구는 청년패널 2021(YP2021) 1~3차 자료(5,515명)를 활용하여 청년의 진로발달과 직업가치관의 시차적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첫째, 1차 진로발달은 2차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2차 스트레스는 3차 직업가치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1차 진로발달은 3차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2차 스트레스는 1차 진로발달과 3차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를 시차적으로 부분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의 진로발달 수준이 이후 스트레스 및 직업가치관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며, 주관적 스트레스가 이 시차적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이는 향후 청년 대상의 진로지원 정책 수립 시 스트레스 완충 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청년, 진로발달, 스트레스, 직업가치관, 시차적연구, 매개효과

-
- First Author: Jung-Won Hwang, Corresponding Author: Jin-Sook Kim
 - *Jung-Won Hwang (chu68yaw@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Jin-Sook Kim (kjs324@hanmail.net),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26. 07. 20, Revised: 2026. 08. 30, Accepted: 2026. 08. 31.
 - This paper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the first author Jung-Won Hwang's 2026 doctoral dissertation.

I. Introduction

청년기의 진로문제는 단순한 취업 준비의 차원을 넘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핵심적 발달과제이다[1][2].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초기 경력의 불안정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안고 있다[3].

그러나 불확실한 노동시장 진입기에 놓인 청년들은 일회적 결정이 아닌 유동적 전환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미래 불안 등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은 청년이 어떠한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직업을 판단하는지(직업가치 중요도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발달은 청년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보다 구조화하여 이해하도록 돕는 심리적 완충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4]. 뚜렷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장래 희망 실현을 준비하며 심리적 편안함을 확보한 청년은 환경적 요구를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 진로발달 수준이 낮아 미래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통제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청년은 자원 상실의 위협 속에서 높은 수준의 주관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

이러한 주관적 스트레스는 결국 청년의 직업가치관 형성 매커니즘으로 이어진다. 직업가치관은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정, 직업 안정성, 자율성 등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가치지향적 인식 체계이다[6]. 불확실한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청년의 직업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청년은 경제적 보상, 안정성, 인정, 자율성과 같은 직업 특성 전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7][8].

기존 연구들은 청년의 진로발달, 스트레스, 직업가치관을 각각 중요하게 다루어왔으나, 이 변인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과정적 경로로 통합하여 검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기존의 횡단연구들은 동일 시점의 단면만을 포착하여 변인 간의 시차적 영향 관계를 파악하거나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근본적인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시점 시차적 설계(time-lagged design)를 적용하여 변인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일정 부분 고려하고, 종단적 흐름의 개연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패널(YP2021) 1~3차 년도 자료를 결합한 다중시점 시차적 매개설계를 적용하여,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이 2차 시

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다시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진로문제를 단편적인 취업성과의 관점에서 벗어나, 발달적 자원의 확보, 심리적 방어, 그리고 능동적 가치 형성의 과정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의 1차 시점 진로발달은 2차 시점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2차 시점 스트레스는 3차 시점 직업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년의 1차 시점 진로발달과 3차 시점 직업가치관의 관계에서 2차 시점 스트레스는 시차적 매개역할을 수행하는가?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Career Development

진로발달은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조정·구체화해 가는 발달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청년기의 진로발달은 단순한 심리적 성숙이나 포괄적 발달을 넘어, 학업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현실적 진로설계와 결정의 구체화 수준'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 국내 진로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진로발달은 단순히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일회적 결정이라기보다 자기이해와 직업이해를 토대로 현실적인 진로경로를 점차 구체화해 가는 연속적 과정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청년기의 진로발달은 단순한 심리적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사회진입의 질과 직업적 적응을 예비하는 강력한 발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지된다.

Super[1]의 생애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청년기는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하고 자신의 선호와 능력을 확인하는 탐색기의 핵심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극심한 취업 경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 생존과 안정을 위한 현실적 조정과정을 겪게 만들며 이 탐색기의 기간을 비자발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Arnett 등[2]이 명명한 '성인기 이행기(emerging adulthood)'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진로장벽을 심각하게 지각하며 자립을 위한 치열한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고전적 의

미의 자연스러운 진로 이행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유예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역동적이고 긴장감 높은 과정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Lent 외[8]의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관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청년의 진로발달은 흥미나 적성의 결과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환경적 조건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인지적·환경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청년들이 겪는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취업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최신 연구 결과는 개인의 진로행동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인지적 위협(스트레스)과 깊게 맞물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전환기에 뚜렷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장래희망 실현을 준비하며 진로결정에 대한 심리적 편안함을 확보한 청년은, 환경적 요구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핵심적인 보호 요인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발달을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청년이 다가올 스트레스와 자원 상실의 위협에 맞서 심리적 완충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발달 자원으로 상정한다.

1.2 Stress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구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지과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청년기 스트레스는 Selye가 제시한 개인의 성향을 돕는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가 아니라, 발달과정 수행 과정에서 자원의 부족과 불확실성이 중첩되며 경험하는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위기 현상(distress)으로 정의된다[9]. 구체적으로 이는 정신적·육체적 부담감, 생활신념 관련 좌절감, 기본적 욕구 불충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나타나며, 전경구 외[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발적으로 누적되는 '생활 스트레스(life stress)'의 형태로 심화될 위험이 크다.

Hobfoll[5]의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은 이러한 청년기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른바 '스펙(spec)'으로 대변되는 인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 기반 등 핵심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실존적 위협과 자원 상실을 지각한다[8]. 이러한 초기 자원의 상실은 자아존중감이나

진로 낙관성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관계적 고립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고갈까지 초래하여 가속화된 추가 자원의 상실을 부르는 '손실 나선(loss spiral)'을 유발하게 된다. 최근의 종단연구[10],[11] 역시 재정적 압박과 고용 불안이 청년의 진로 낙관성을 파괴하고 극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핵심 기제임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역으로, 진로발달 수준이 높게 선행된 청년은 다가올 스트레스와 자원 상실의 위협에 맞서 심리적 완충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일상적 번거로움이나 만성적 부담감을 유의미하게 경감시킬 수 있다. Hobfoll[4]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자신의 진로를 깊이 탐색하며 준비하는 과정(진로발달)은 단순히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넘어, 스트레스의 위협에 맞서 자신의 인지적·행동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resource investment)하는 적응적 대처전략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1.3 Work Values

직업가치관은 청년이 직업이나 일자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나 보상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가치지향 체계이다. 본 연구는 직업가치관을 경제적 보상, 직업 안정, 인정, 자율성의 네 가지 차원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중요도 인식으로 조작화하였다. 이는 고정된 성격 특성이라기보다 대학생학, 진로지도, 일 경험, 노동시장 정보 등 사회화와 발달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고 재조정되는 역동적 구성물이다. Lechner 등의 연구에서도 성인기 이행기 동안 직업가치관이 완전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과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조정되고 정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6]. 특히 오늘날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Z세대 청년들에게 외재적 생존 조건(경제적 보상, 직업 안정)과 내재적 주도성(사회적 인정, 업무 자율성)은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이분법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관적 통제감(sense of control)을 확보하기 위해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다면적으로 강력히 추구'하는 통합적 가치 지향성을 나타낸다. 즉, 개별 가치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profile) 분류보다 "청년이 직업 세계를 바라볼 때 작동시키는 종합적인 판단의 닻(anchor)으로서 가치 부여의 총체적 강도(intensity of perception)"를 포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들 네 가지 하위 요인은 단일한 잠재적 지향 구조를 지닌 전통적 의미의 독립된 잠재요인(Work Values)이라기보다, 개인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 차

원의 중요성 인식이 합산된 'work values의 총 인지중요도(total perceived importance of work values)' 개념으로 제한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통적으로 직업가치관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 같은 외재적 조건과 적성, 성취감 같은 내재적 가치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극심한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최근의 청년(Z세대)에게는 스스로 업무 통제권을 갖는 '자율성'과 사회적 '인정' 같은 가치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의 통제감(sense of control)을 확보하려는 핵심적인 생존 전략 및 세대적 지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오늘날 청년은 전통적인 경제적 보상과 안정성이 주는 외재적 생존 조건뿐만 아니라 내재적 성취를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을 평가하는 복합적 가치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직업가치관의 확립은 청년의 심리적 여력에 크게 의존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지적·정서적 에너지가 소진된 청년은, 직업을 통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찰할 정서적 대처 여유를 제한받게 된다. 즉, 스트레스가 높은 청년은 경제적 보상, 안정성, 인정, 자율성과 같은 직업 특성 전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취업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이 청년의 다차원적 직업가치 중요도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12]. 결과적으로 청년의 다차원적 직업가치 중요도 인식은 이성적인 정보탐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진로 발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원 상실의 위협(스트레스)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매개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I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Development

1.1 Research model overview

본 연구는 청년의 진로발달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수행하는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기반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횡단연구(cross-sectional design)들이 지나는 시간적 선후관계 추론의 한계와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시차를 둔(time-lagged) 다중시점 시차적 매개설계(multi-wave Time-Lagged

mediation design)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21(YP2021)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을 독립변수로, 2차 시점의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의 초기 진로발달 수준이 이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가치관 형성에 이르는 간접효과 메커니즘을 시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변수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한 예측 경로를 보다 안정적으로 탐색하고자 외생변수의 혼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차 시점 기준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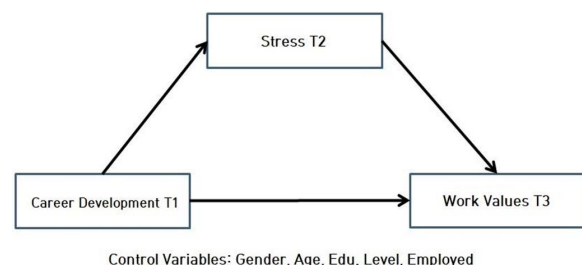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Research Model

1.2 Hypotheses

본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은 2차 시점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2차 시점의 스트레스는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은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2차 시점의 스트레스는 1차 시점의 진로발달과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를 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2. Research Method

2.1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한 청년패널 2021(Youth Panel 2021; 이하 YP2021) 자료를 활용하였다. YP2021은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진로형성, 취업경험, 직업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승인통계이다. YP2021의 최초 1차 조사(2021년)에 참여하여 응답을 완료한 청년 표본은 총 12,213명이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중

단적 마모와 추적 실패 등으로 인해 3차 조사(2023년) 시점까지 유지되어 직업가치관 문항에 응답한 기초표본은 5,720명이었다. 본 연구는 이 기초표본 가운데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및 주요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 문항에 결측치(missing values)가 없는 완전 응답자(complete cases) 5,515명을 최종 분석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차년도 최초 표본(12,213명) 대비 최종 유효표본(5,515명)에 이르기까지 종단 마모 및 결측 등으로 최종 제외된 총 인원은 6,698명이다. 최종 완전사례 분석 대상자와 종단 탈락자 간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분포를 교차 대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조 결과, 주요 변수 분포의 왜곡이나 인구사회학적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표본 편향(selection bias)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표본의 대표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 표본을 기반으로 다변량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적용하였다. 대규모 SEM 분석 시 인위적인 패널 가중치(panel weight)를 과도하게 투입하면 표준오차의 인위적 왜곡이나 추정치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적합도 지수 산출 과정의 기술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복잡한 가중치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대신, 비가중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로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 대신 주요 배경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취업 여부)을 모형 내 통제변수(공변량)로 직접 투입하여 경로 계수의 추정 효율성과 방법론적 강건함을 도모하였다.

2.2 Measurement instruments and variable definitions

본 연구는 주요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적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추정하고 통제되지 않은 외생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 시점 기준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활동 특성을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 설정하여 2차 스트레스와 3차 직업가치관에 투입하였다. 통제변수의 구체적인 정의와 투입 근거는 다음과 같다.

Gender(성별): 청년기의 스트레스 지각 양상과 내·외재적 직업가치관의 중요도 비중에 구조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 배경변인이므로, 남성=0, 여성=1로 가변수화(dummy coding)하여 투입하였다.

Age(연령):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 이르는 청년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규범적 압박과 진로 유예에 따른 불안감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1차 시점의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Edu. Level(최종학력): 학력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

조 하에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강력한 신호(signaling)로 작용하며, 청년의 낙관성과 보상 기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고졸 미만=1부터 석사 졸업 이상=5까지 5단계 서열변수로 투입하였다.

Employed(취업 여부): 취업 상태는 재정적 자원 고갈 위협을 낮추는 반면, 미취업 상태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여 청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규정하는 즉각적인 환경변인이다. 따라서 1차 시점 기준 취업자는 1, 그 외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0으로 이분화하여 통제하였다.

2.3 Operational definitions of variables

본 연구의 주요 잠재변수들은 YP2021 원조사 문항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만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를 내렸다.

Career Development (T1): 청년기의 진로문제를 막연한 탐색 차원으로 환원하지 않고, 불확실한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지표인 '현실적 진로설계와 결정의 구체화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계획의 명확성', '직업 계획 수립', '장래희망 실현 준비', '진로결정에 대한 편안함'의 4문항을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Stress (T2):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는 단순한 일상적 긴장이나 업무 과부하(eustress)가 아니라, 자원보존이론[5]에 기반하여 개인의 핵심 심리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자원 상실(distress)'의 징후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부담감', '생활신념 관련 좌절감', '기본적 욕구의 불충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는 불안'의 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Work Values (T3): 본 연구의 직업가치관은 단일한 잠재구성개념(Work Values)으로 해석하기보다, 직업 선택 시 개별 가치 속성에 부여하는 '직업가치의 총 인지중요도(total perceived importance of work values)' 개념으로 제한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이고 외재적인 생존 조건을 대변하는 '경제적 보상'과 '직업 안정', 그리고 내재적인 자아실현과 주도성을 대변하는 '인정'과 '자율성'의 4가지 가치요소를 직업 선택 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개별 가치 지향의 상대적 우위보다는 청년층이 직업 세계를 바라볼 때 작동시키는 가치 부여의 총체적 강도(intensity of perception)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2.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30.0과 AMOS 3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왜도,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변수 간의 방향성과 다중공선성 우려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관측지표들이 설정된 잠재변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집중타당도(CR, AVE)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동일 응답원을 통한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수행하였다. 넷째, 통제변수를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구축하여 1차 진로발달, 2차 스트레스, 3차 직업가치관으로 이어지는 시차적 매개분석(time-lagged medi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지수 외에도 CMIN/DF(≤ 5), CFI($\geq .90$), TLI($\geq .90$), RMSEA($\leq .08$)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resampling 5,000회)을 적용하였으며, 95% 편의교정 신뢰구간(bias-corrected CI)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간접효과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IV. Results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인 5,51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2,583명(46.8%), 여성 2,932명(53.2%)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차 시점(2021년) 조사 기준 연령 분포는 23~26세가 2,643명(4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22세가 1,526명(27.7%), 27~28세가 1,346명(24.4%)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Edu. Level)은 고등학교 졸업(High School)이 2,886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University) 1,735명(31.5%), 전문대학 졸업(College) 846명(15.3%), 석사학위 이상($\geq$ Master's) 28명(0.5%), 고졸 미만(< High School) 20명(0.4%) 순으로 분포하였

다. 취업 여부(Employed)의 경우 취업자가 3,548명(64.3%)으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미취업자는 1,967명(35.7%)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취업자 집단에는 실업자(188명, 3.4%)뿐만 아니라,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순수 학생이나 진학 및 자격증 취득 등 학업에 전념하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1,779명, 32.3%)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표본의 분포는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이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다방면에서 청년층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분포를 비교적 다각도로 포괄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5,51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583	46.8
	Female	2,932	53.2
Age	19~22	1,526	27.7
	23~26	2,643	47.9
	27~28	1,346	24.4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20	0.4
	High School	2,886	52.3
	College	846	15.3
	University	1,735	31.5
	$\geq$ Master's	28	0.5
Employed	Employed	3,548	64.3
	Unemployed	1,967	35.7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차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의 평균은 4.273(SD=.741)으로 6점 만점 기준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이는 응답자인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진로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차 스트레스(Stress)의 평균은 1.474(SD=.722)로 5점 척도 기준 표면적인 평균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차 직업가치관(Work Values)의 평균은 3.855(SD=.543)로, 청년들이 직업 선택 시 경제적 보상, 안정, 인정, 자율성 등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중요하게(보통과 중요하다 사이)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과, 2차 스트레스의 왜도가 1.994로 양(+)의 방향으로 다소 치우친 분포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한 통상적인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위치하였다. 스트레스의 양(+)의 왜도는 전체 평균은 낮더라도 일부 청년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담감과 미래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Cronbach's α 계수는 진로발달 .843, 스트레스 .914, 직업가치관 .708로 모두 기준치(.60 이상)를 상회하여 양호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Variables	M	SD	Sk.	Ku.	α
CD (T1)	4.273	0.741	-0.482	0.592	.843
Stress (T2)	1.474	0.722	1.994	3.806	.914
Work Values (T3)	3.855	0.543	-0.464	0.652	.708
CD: Career Development					

3.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 우려를 점검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Table 3), 1차 진로발달은 2차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 = -.078, p < .001$), 3차 직업가치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142, p < .001$). 또한 2차 스트레스는 3차 직업가치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090, p < .001$).

이러한 결과는 진로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고, 직업가치관의 중요도 인식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아울러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우려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CD	2. Stress	3. Work Values
CD (T1)	1		
Stress (T2)	-.078***	1	
Work Values (T3)	.142***	-.090***	1
CD: Career Development			
*** $p < .001$.			

4. Measurement model and validity

구조방정식모형(SEM) 검증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45.671(df = 51, p < .001)$, CMIN/DF = 4.817, CFI = .993, TLI = .991, RMSEA = .02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도구의 요인적재량,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값(AVE)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를 바탕으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80 ~ .874의 범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개념신뢰도(CR) 역시 .709 ~ .915로 기준치(.70 이상)를 충족하였다.

3차 직업가치관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379로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측정상의 한계로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직업가치관 변수가 단일한 심리적 감정을 묻는 척도와 달리, 성격이 서로 다른 다차원적 가치 속성들이 하나의 잠재개념으로 결합된 복합 구성개념(composite-like construct)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중타당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주요 지표인 개념신뢰도(CR)가 .709로 일반적인 수용 기준치인 .70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관측변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p < .00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다른 잠재변수들과의 판별타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시차적 구조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탐색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학술적 유용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의 경우,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제곱근(.616 ~ .854)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r = -.111 \sim .176$)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개념 간의 명확한 독립성이 입증되었다. 추가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에 따른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우려를 점검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의 설명 분산이 28.202%로 나타나 기준치인 50%를 밑돌아 심각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ity

Variables	Std. Loading	CR	AVE
Career Development (T1)	.677 - .847	.845	.578
Stress (T2)	.811 - .874	.915	.730
Work Values (T3)	.580 - .652	.709	.379
Model Fit: $\chi^2=245.671(df=51, p<.001)$, CMIN/DF=4.817, CFI=.993, TLI=.991, RMSEA=.026			

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path analysis (Hypotheses 1, 2, and 3)

통제변수(Gender, Age, Edu. Level, Employed)를 포함한 시차적 매개모형의 구조방정식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360.856(df = 87, p < .001)$, CMIN/DF = 4.148, CFI = .991, TLI = .988, RMSEA = .024로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다. 아울러 본 모형의 다중상관자승(SMC)을 통해 산출된 설명력(R^2)을 검토한 결과, 2차 시점의 스트레스는 1.0%($R^2 = .01$),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은 4.0%($R^2 = .04$)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표본($N = 5,515$)의 통계적 특성으로 인해 주요 경로들이 모두 높은 유의수준($p < .001$)에서 지지되었으나, 실질적인 설명력은 다소 제한적이며 본 연구 모형 외에도 다양한 외생적 요인들이 청년의 스트레스와 가치관 형성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구조경로분석 결과와 최종 경로계수가 제시된 모형도는 각각 Table 5와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5와 Fig. 2에 도출된 계수를 살펴보면, 이론적 모형에 기반한 세 가지 주요 구조경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은 2차 시점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쳤다($\beta = -.100, p < .001$). 이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실현 준비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경험하는 미래 불안과 자원 상실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심리적 완충기제(buffer)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2차 시점의 스트레스는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06, p < .001$). 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이 직업 선택 시 경제적 보상, 안정성, 인정, 자율성 등의 가치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째,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은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60, p < .001$). 주도적으로 진로를 구체화해 나가는 발달적 역량은 이후 직업 선택에서 다양한 가치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3은 지지되었다.

Table 5.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s	B	SE	β	C.R.	p
CD → Stress	-0.092	0.014	-0.100	-6.514	<.001
Stress → Work Values	-0.072	0.011	-0.106	-6.325	<.001
CD → Work Values	0.100	0.011	0.160	9.018	<.001

CD: Career Development
 R^2 (SMC): Stress = .01, Work Values = .04
 Control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Employed omitted for bre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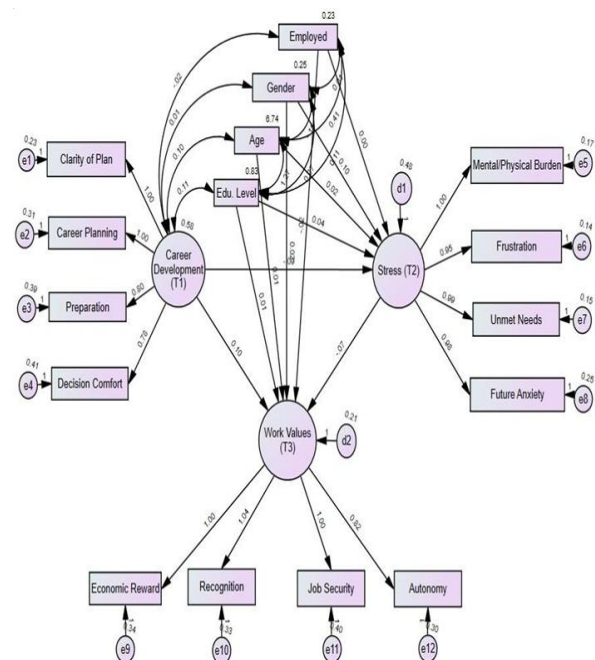


Fig. 2. Time-Lagged Mediation Model

6. Mediation Effect of Stress (Hypothesis 4)

2차 시점의 스트레스가 진로발달과 직업가치관 사이에서 수행하는 시차적 매개효과를 유의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resampling 5,000회, 95%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산출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결과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이 2차 시점의 스트레스를 거쳐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비표준화 간접효과는 .007(95% 편의교정 신뢰구간: .005, .009)로 도출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표준화 간접효과는 .011로 도출되었다. 비표준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양측검정 유의확률 역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차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학술적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만족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직접효과가 유의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경유하는 시차적 간접경로의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지지됨에 따라, 2차 스트레스는 1차 진로발달과 3차 직업가치관 간의 시차적 간접경로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진로 설계 및 준비가 다소 미흡할 경우 주관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가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다양한 가치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 중요도 지각 수준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손실 나선' 메커니즘의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상의 신중함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Hypothesis 4는 최종 지지되었다.

Table 6. Results of Mediation Effect

Path	Unstandardized Indirect (B)	Unstandardized 95% BC CI	Standardized Indirect (β)	p
CD → Stress → WV	.007	[.005, .009]	.011	<.001

CD: Career Development, WV: Work Values

V. Discussion and Conclusion

1. The Summary of Results

본 연구는 청년패널 2021(YP2021) 1~3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진로발달(T1), 스트레스(T2), 직업가치관(T3) 간의 관계를 다중시점 시차적 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은 2차 시점의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2차 시점의 스트레스는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에 부적(-) 영향을, 1차 시점의 진로발달은 3차 시점의 직업가치관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000회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통해 스트레스의 유의한 시차적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성별, 연령, 학력, 취업 여부를 통제한 모형에서도 이 핵심 경로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설정된 4개의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2. Interpretation of Findings

첫째, 청년의 진로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노동시장 이행기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기의 진로 준비를 단순히 기술적인 취업 역량 축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환경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심리적 완충 자원(protective resource)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극심한 스펙 경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진로 방향성을 명확히 확립한 청년은, 자원 상실의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심리적 대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Hobfoll의 자원투자(resource investment) 메커니즘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청년이 겪는 주관적 스트레스는 직업 선택 시 다양한 가치요소들에 대해 부여하는 주관적 중요도 지각 수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이 실증되었다. 과도한 불안과 주관적으로 지각된 높은 스트레스는 청년들이 당면한 진로 탐색 과정에서 대처 부담을 가중시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의 내·외재적 가치 요소를 다각도로 고려하는 과정에 심리적 자원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경제적 보상, 직업 안정성, 인정, 자율성 등 개별 가치 요인들에 대해 부여하는 주관적인 중요도 평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차적 직접 경로관계를 살펴보면, 1차 시점의 진로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3차 시점의 다차원적 직업가치 중요도 지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횡단연구들이 주로 직업가치 중요도 지각을 진로성숙이나 준비행동의 선행 예측변인으로 취급하여 분석해 온 흐름과 중대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시차적 연구는 그 역의 흐름으로서, 청년 초기에 형성된 주도적인 진로발달 수준이 시간의 경과(Time 3)에 따라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다차원적 직업가치 요인들의 주관적 중요도를 한층 더 높게 인식하도록 이끄는 주요한 경험적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즉, 준비된 청년일수록 단순히 특정 가치 요인에만 편중되지 않고, 일의 내·외재적 가치 요소를 고르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직업가치 중요도 지각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Theoretical Implications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과 Hobfoll의 자원보존이론을 단일 모형 안에서 융합하였

다. 즉, 본 연구는 진로 준비의 미흡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다차원적 직업가치 중요도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실 나선(loss spiral)'적 흐름을 대규모 실증 데이터로 시사하였다. 이는 기존에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던 청년기 진로연구의 시각을 보다 통합적인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비록 본 모형에서 도출된 매개경로의 표준화 계수 크기(.011)와 다중상관자승(SMC)에 따른 설명력(스트레스 1.0%, 직업가치관 4.0%)이 통계적 수치상으로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크기 측면에서 제한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 여부 등 청년의 정서적 적응과 구직 태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구사회학적 공변량(covariates)들을 모형 내에서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차적 연관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실제 세계의 무수한 외생 변인들의 복합적인 간섭을 감안할 때 결과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되지만, 이처럼 비록 효과크기는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및 직업가치관 간의 시차적 관계가 종단 데이터 분석(Time 1 ~ Time 3)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은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단기 고용 지표 달성 위주의 사후 처방적 접근을 넘어, 대학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진로 설계 지원과 스트레스 예방적 상담 가이드라인 구축의 학술적 타당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한 유용한 실증적 기초 토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중시점 시차적 매개설계를 적용하여 기존 횡단연구가 지닌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추론의 한계를 시차적 설계를 통해 보완하고,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절차적으로 통제하여 연구의 엄밀성을 높였다.

4. Practical Implications

정책 및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진로 지원 현장에서는 표면적인 취업 정보 제공이나 단기적 기술 훈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로 상담의 초기 단계부터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소진과 미래 불안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회복을 돕는 다층적 통합 개입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을 연계하여 지원한다면, 청년들이 주체적인 직업가치관을 안정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본 연구는 청년의 진로발달이 주관적 스트레스를 거쳐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시차적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학술적·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YP2021)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강하게 투영된 2021년 기점의 자료라는 점과, 최근 노동시장에 급격한 기술적 충격을 주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래 불안 요인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이러한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이 청년의 진로발달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대학 재학생과 초기 고졸 취업자 등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다집단 분석이나,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면담 중심의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주요 잠재변수 중 하나인 직업가치관(Work Values)의 조작화 및 측정모형 구성에 제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보상, 직업 안정, 인정, 자율성을 하나의 단일 잠재요인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들 하위 가치는 서로 상충되거나 다른 가치지향적 차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차원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평균분산추출값(AVE)이 통상적인 기준인 0.50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비록 개념신뢰도(CR)와 요인부하량,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어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을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명확히 이분화하여 비교하거나, 네 가지 하위 요인을 각각 독립된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개별 경로의 차이를 다중경로분석으로 규명하는 정교한 방법론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변수 간의 통제력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본 모형에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 여부 등 주요 배경변수를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나, 청년의 스트레스와 진로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저 정신건강 상태, 성격특성, 혹은 진로자기효능감 등의 핵심 외생 변인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패널 자료의 특성상 통제변수를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다중시점 간 결측치의 누적으로 인해 유효 분석 표본(N=5,515)의 심각한 손실과 리스트와이즈 제거에 따른 표본 편이가 발생하는 방법론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별적 조치였으나, 이로 인해 분석된 경로계수가 외생적 요인의 간섭을 완벽히 차

단한 상태에서 도출된 순수한 인과적 결과물임을 주장하는 데는 학술적 한계가 따르며, 결과 해석 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의 인지적·환경적 배경을 다각도로 제어하면서도 유효 표본의 대표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 설계와 통계적 해석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중시점 시차적 설계(time-lagged design)를 적용하여 변수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역인과성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각 변수가 각 시점에서 단 일회씩만 측정(T1 진로발달 → T2 스트레스 → T3 직업가치관)되어 개별 변수 자체의 종단적 변화량(change)을 완전히 모형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T1 진로발달이 T2 스트레스의 주관적 변화를 실제로 유도했는지, 혹은 개인의 기저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결과인지 완전히 분리하여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변수를 매 시점 반복 측정하는 다집단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Panel Model) 등을 적용하여 변화의 궤적과 상호 역동적인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5,515명의 대규모 패널 표본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통계적 검증력과 유의수준($p < .001$)을 확보하였으나, 다중상관자승(SMC)을 통한 설명력(R^2)과 매개효과와의 표준화 계수 크기가 다소 작아 실질적인 효과 크기 측면에서 제한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로 유의성을 지나치게 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유의성 뒤에 숨겨진 제한적인 설명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모형 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생적 자원 요인들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6. Conclusion

본 연구는 청년의 직업가치관이 취업정보 탐색뿐만 아니라 진로발달 수준과 스트레스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스트레스가 진로발달과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년의 진로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발달적 자원의 확보, 심리적 방어, 그리고 능동적인 삶의 가치 형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다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6, No. 3, pp. 282-298, Jun. 1980. DOI: 10.1016/0001-8791(80)90056-1
- [2] J. J. Arnett, R. Zukauskienė, and K. Sugimura, "The new life stage of emerging adulthood at ages 18-29 year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The Lancet Psychiatry*, Vol. 1, No. 7, pp. 569-576, Jul. 2014. DOI: 10.1016/S2215-0366(14)00080-7
- [3] A. K. Kim, D. J. Shin, and J. E. Choi, "A study on the spec competition and career development of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7, No. 2, pp. 23-45, 2018.
- [4] S. E. Hobfoll, "The influence of culture, community, and the nested-self in the stress process: Advancing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50, No. 3, pp. 337-421, 2001. DOI: 10.1111/1464-0597.00062
- [5] S. E. Hobfoll,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3, pp. 513-524, Mar. 1989. DOI: 10.1037/0003-066X.44.3.513
- [6] C. M. Lechner, F. M. Sortheix, R. Gollner, and K. Salmela-Aro, "The development of work valu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 two-country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9, pp. 52-65, Apr. 2017. DOI: 10.1016/j.jvb.2016.12.004
- [7] K. K. Chon, K. H. Kim, and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316-335, 2000.
- [8]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5, No. 1, pp. 79-122, Aug. 1994. DOI: 10.1016/0001-8791(94)90011-6
- [9] H. Selye, "Stress without distress," *J.B. Lippincott*, pp. 1-171, 1974.
- [10] A. Wake and A. W. O'Donnell,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stress, career related optim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emerging adulthood in Australia," *Youth & Society*, Vol. 56, No. 7, pp. 1336-1363, Sep. 2024. DOI: 10.1177/0044118X231201509
- [11] J. Ko, A. Choi, and S. Ho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youth's mental health: Focusing on personal and social fact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45, No. 3, pp. 241-264, 2025.
- [12] G. U. Kim, J. C. Sim, and S. Y. Im,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Job Search Stress Scale for Korean Under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5, No. 2, pp. 441-469, 2023.
- [13]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Youth Panel 2021 (YP2021) 1st-3rd Wave Data and User Guid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p. 1-100, 2023.

Authors



Jung-Won Hwang received the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26. Dr. Hwang is currently with the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youth welfare and disabled welfare, etc.



Jin-Sook Kim receive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in 2007. Dr.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 Chosu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child welfare, family welfare, addiction studies,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etc.